

廣州語와 표준 중국어의 否定文 比較 研究

趙恩挺*

◁ 목 차 ▷

I. 緒論

II. 廣州語 否定詞의 類型

1. 「唔」(不) : 動作이나 상태 등의 부정
2. 「冇」(沒有) : 존재나 소유, 과거의 행위 등을 부정
3. 「唔使」(不用, 不必) : 필요의 부정
4. 「(仲)未」(還沒) : 동작의 발생을 부정
5. 「咪」, 「唔好」(別, 不要) : 行爲의 禁止

III. 結論

I. 緒論

廣州語는 漢語 七大方言¹⁾의 하나인 粵方言의 대표 언어를 일컫는 말로, 粵方言의 대표 지역인 廣州市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廣州語라고 한다. 春秋戰國 시기에는 廣東과 廣西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을 '越' 또는 '粵'이라고 불렀는데, 粵方言의 '粵'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廣州語는 北方에서 멀리 떨어진 南方의 언어이기 때문에 語音, 語彙, 語法 모두 표준 중국어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語法, 그 중

* 成均館大學教 中語中文學科 講師

1) 漢語 七大方言은 官話方言(또는 北方方言), 吳方言, 湘方言, 贛方言, 客家方言, 粵方言, 閩方言의 일곱 가지 방언을 가리킨다. 黃景湖《漢語方言學》:「現在根據能看到的方言調查材料, 採用語音的特徵和綜合判斷, 按通行的說法大別分爲官話方言, 吳方言, 湘方言, 贛方言, 客家方言, 粵方言, 閩方言七個區.(현재 방언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어음의 특징과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 본다면, 통용되고 있는 주장에 따라 크게 官話方言, 吳方言, 湘方言, 贛方言, 客家方言, 粵方言, 閩方言의 일곱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福建, 廈門大學出版社, 1987.6), 33쪽.

에서도 특히 否定文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廣州語의 否定文은 일반적으로 「唔」을 사용하여 動作이나 상태 등을 부정하고, 「冇」를 사용해 존재나 소유, 과거의 행위 등을 부정한다. 「唔」은 표준 중국어의 「不」에, 「冇」는 표준 중국어의 「沒有」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唔使」, 「咪」, 「唔好」, 「(仲)未」가 있는데, 필요의 부정을 나타내는 「唔使」는 표준 중국어의 「不用」, 「不必」에 해당하고, 동작이나 상태가 아직 발생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仲)未」는 「(還)沒」에,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咪」와 「唔好」는 「別」와 「唔好」에 해당한다.

표준 중국어에서는 「不」[pu⁵¹], 「別」[pie³⁵] 혹은 「沒(有)」[mei³⁵]와 같이 [p-]와 [m-]으로 발음되는 否定詞들로 否定文을 구성하는데 비해 廣州語에서는 「唔」[m²¹], 「冇」[mou¹³], 「未」[mei²²], 「咪」[mei¹³]와 같이 [m-]으로 발음되는 否定詞들로만 否定文을 구성한다. 즉, 표준 중국어 否定詞의 성모는 中古音의 幫母와 明母에 해당하지만, 廣州語 否定詞의 성모는 中古音의 明母에만 해당한다.

지금까지 廣州語에 관한 많은 개론서가 출판되었지만 否定文에 관한 내용은 너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고를 쓰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廣州語의 否定文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廣州語 否定詞의 類型

1. 「唔」(不) : 動作이나 상태 등의 부정

「唔」은 표준 중국어의 「不」에 해당하며,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놓여 동작이나 판단, 존재, 습관적인 행위, 상태 등을 부정한다. 또한 조동사 앞에 놓여 조동사를 부정하기도 한다.

否定文 「唔」의 문형은 기본적으로 표준 중국어 「不」와 일치한다. 그렇지만 대답을 할 경우 표준 중국어는 「不」로만 대답할 수 있는 반면 廣州語는 「唔」

으로만 대답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冇」는 표준 중국어의 「沒有」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 (1) A : 我聽日去睇戲, 你去咩?
 (我明天去看電影, 你去嗎?)
 나 내일 영화 보러 갈 건데, 너 갈래?
 B : a. 唔去喇. (a. 不去.)
 b. *唔. (b. 不.)
 아니.
- (2) A : 佢有冇寫信畀你啊?
 (他有沒有寫信給你?)
 그 사람 너한테 편지 보냈니?
 B : 冇啊.
 (沒有.)
 아니.

예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唔」은 표준 중국어 「不」와는 달리 단독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唔去」처럼 「唔+동사」의 형태로 대답해야 한다. 그렇지만 「冇」는 예문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다.

「唔」은 비과거시제(현재나 미래)와 함께 쓰이지만, 「冇」는 과거시제와 함께 쓰인다.

否定文 「唔」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唔+동사」

- (3) 你點解唔去呢?
 (你爲什麼不去呢?)
 너 왜 안 가니?
 (4) 我唔識佢.
 (我不認識他.)
 나 그 사람 몰라.

예문 (3)과 (4)는 동작이나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데, (3)은 「唔」이 동사 「

去」 앞에, 예문 (4)는 동사 「識」 앞에 놓여 각각의 동작과 행위(‘간다’와 ‘누구를 안다’)를 부정하고 있다.

- (5) 佢唔係我嘅老細。
 (他不是我的老闆.)
 그 분 우리 사장님 아니야.
 (6) 佢唔係講笑。
 (他不是再開玩笑.)
 그 사람 농담하는 거 아니야.

예문 (5)와 (6)은 판단의 부정을 나타낸다. 「係」는 ‘~이다’ 라는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로 否定副詞 「唔」이 「係」의 앞에 놓여 「唔+係」의 형태로 부정문을 구성하고 있다. 위의 예문들에 나타난 「唔係」는 표준 중국어의 「不是(~가 아니다)」에 해당한다.

- (7) 我老實而家唔喺處。
 (我爸爸現在不在這裏.)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 안 계셔.
 (8) 阿三^ㄉ喺唔喺度啊?
 (阿三在不在?)
 阿三 있어요?

廣州語에 있어서 존재의 부정은 「唔+ㄉ係」의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ㄉ係」는 ‘~이(~에) 있다’ 라는 뜻으로 표준 중국어의 「在」에 해당한다. 이는 粵方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粵語特有詞’로, 대부분의 ‘粵語特有詞’는 「ㄉ係」와 같이 「口」偏旁을 사용해 글자를 만들어냈다. 위의 예문 (7)은 「ㄉ係」 앞에 否定副詞 「唔」이 놓여 존재를 부정하는 부정문을 구성하고 있고, 예문 (8)은 긍정의 「ㄉ係」와 부정의 「唔ㄉ係」가 서로 중첩되어 正反疑問文을 구성하고 있다.

- (9) 我唔飲酒, 又唔食煙。
 (我不喝酒, 也不抽煙.)
 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
 (10) 我唔食羊肉。

(我不吃羊肉.)
난 양고기는 안 먹어.

否定副詞 「唔」은 동사 앞에 놓여 습관적인 행위를 부정하기도 한다. 예문 (9)와 (10)은 기호식품이나 식습관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데, 廣州語에서 「飲」은 「喝」에, 「食」은 「吃」와 「抽(煙)」에 해당한다.

2) 「唔 + 형용사」

- (11) 成日落雨, 周圍濕粒粒, 好唔舒服.
(整天下雨, 周圍濕漉漉, 很不舒服.)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사방이 온통 다 축축해서 상당히 불쾌해.
- (12) 佢聽見嘅話就唔高興.
(他聽到那句話就不高興了.)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

어떠한 상태나 성질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형용사 앞에 否定副詞 「唔」이 놓여 「唔 +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된다. 형용사가 대부분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기 때문인데, 예문 (11)은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舒服」앞에, 예문 (12)는 기쁜 상태를 나타내는 「高興」앞에 「唔」이 놓여 이와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否定文으로 쓰였다.

3) 「唔 + 조동사」

- (13) 我唔識講中文.
(我不會講中文.)
나 중국어 할 줄 몰라.
- (14) 佢唔會游水.
(他不會游泳.)
그 사람 수영할 줄 몰라.
- (15) 今日唔會落雨.
(今天不會下雨.)
오늘은 비 안 올 거야.

- (16) 我而家唔想睇戲。
 (我現在不想看電影。)
 나 지금은 영화보고 싶지 않아.

표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唔」은 조동사 앞에 놓여 「唔+조동사」의 형태로 否定文을 구성한다. 위에서 예로 든 조동사는 「識」, 「會」, 「想」인데, 그 중에서 「識」은 동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도 쓰인다. 예문 (4)에서의 「識」은 '누구를 안다(認識)' 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지만 예문 (13)에서의 「識」은 동사 「講」앞에 놓여 '~을 할 줄 안다' 라는 조동사로 쓰였다.

예문 (14)의 「會」도 (13)의 「識」과 같이 '~을 할 줄 안다' 라는 뜻의 조동사로 쓰였다. 원래 '~을 할 줄 안다' 라는 조동사는 廣州語에서 「識」하나만 쓰였는데, 후에 표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會」도 함께 쓰이게 되었다. 예문 (14)는 「佢唔識游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문 (15)의 「會」는 표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 할 것 같다' 라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예문 (16)의 「想」은 '~하고 싶다' 라는 소망을 나타낸다.

4) 可能補語의 부정형

① 「동사+得」의 부정형

동사 뒤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구조조사 「得」이 결합되는 경우, 긍정형은 표준 중국어와 같지만 부정형은 이와 다르다. 즉, 부정형에서는 否定詞의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

- | | |
|--------------|-----------------|
| (17) 긍정 : 食得 | (17-1) 부정 : 唔食得 |
| (吃得 = 可以吃) | (吃不得 = 不能吃) |
| 먹을 수 있다. | 먹을 수 없다. |

예문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형은 廣州語와 표준 중국어 모두 동사 뒤에 구조조사 「得」이 놓이는 형태, 즉 「食得」과 「吃得」로 서로 일치한다. 그렇지만 부정형은 否定詞가 놓이는 위치가 서로 다른데, 예문 (1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廣州語는 동사 「食」과 구조조사 「得」 앞에 否定詞 「唔」이 놓여

「唔食得」이 되는 반면, 표준 중국어는 동사 「吃」와 구조조사 「得」 사이에 否定詞 「不」가 놓여 「吃不得」가 된다. 즉 :

吃 丕 得
 ↙
唔 食 得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 중국어는 「동사+不+得」의 순서로 否定副詞 「不」가 동사와 「得」사이에 놓이게 되지만, 廣州語는 「唔+동사+得」의 순서로 否定副詞 「唔」이 동사와 「得」앞에 놓이게 된다. 이와 유사한 예는 다음과 같다.²⁾

- (18) 唔捨得 - 捨不得 (아깝다, 아쉽다.)
- (18-1) 唔怪得 - 怪不得 (어쩐지)
- (18-2) 唔記得 - 記不得 (기억이 안 나.)
- (18-3) 唔受得 - 受不了 (참을 수 없다.)
- (18-4) 唔批評得 - 批評不得 (비평할 수 없다.)
- (18-5) 唔放鬆得 - 放鬆不得 (늦출 수 없다.)
- (18-6) 唔寫得字 - 寫不了字 (글씨를 쓸 수 없다.)
- (18-7) 唔行得咁遠 - 走不了那麼遠 (그렇게 멀리 걸을 수 없다.)

② 「동사+得+補語」의 부정형

동사와 「得」뒤에 보어가 결합되는 「동사+得+補語」의 부정형은 「동사+得」의 부정형 「唔+동사+得」과는 달리 두 가지의 형태와 두 가지의 뜻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看得見(보인다)」은 廣州語에서 「睇得見」이라고 하는데 부정형은 「睇唔見」과 「唔睇得見」의 두 가지가 있다. 「睇唔見」은 주관적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唔睇得見」은 객관적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즉 「睇唔見」은 '안 보여' 이고 「唔睇得見」은 '보면 안 돼, 볼 수 없다'이다. 또 다른 예로 「出不去(나갈 수 없어)」가 있는데 廣州語에서는 「出唔去」

2) 曾子凡 《廣州話·普通話語詞對比研究》(香港, 商務印書館, 1984年1月), 159쪽 참조.
千島英一 《廣州方言形成的研究》(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碩士學位論文, 1983年 4月), 170쪽 참조.

와 「唔出得去」의 두 가지로 나뉜다. 즉, 「出唔去」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갈 수 없어, 못 나가' 이고 「唔出得去」는 객관적인 상황에 의한 것으로 '나가면 안 돼' 이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 중국어	廣州語 (개인적 사정)	廣州語 (객관적 상황)
看不見 (안 보여)	睇唔見 (안 보여)	唔睇得見 (보면 안 돼, 볼 수 없어)
出不去 (나갈 수 없어)	出唔去 (나갈 수 없어, 못 나가)	唔出得去 (나가면 안 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사+得+補語」의 부정형은 「동사+唔+補語」와 「唔+동사+得+補語」의 두 가지 형태를 지니는데, 전자는 주관적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이고 후자는 객관적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否定文 「唔」의 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 중에서는 표준 중국어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否定文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唔」의 용법을 제대로 익혀두면 다른 否定文의 형식을 익히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冇」(沒有) : 존재나 소유, 과거의 행위 등을 부정

「冇」는 '~이 없다' 또는 '~하지 않았다' 의 뜻으로 소유나 존재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행위, 사실, 경험 등을 부정한다. 이는 표준 중국어의 「沒有」에 해당한다.

「冇」의 本字는 「無」로 陽平調에 해당하지만 「有」의 영향을 받아 陽上調로 읽힌다. 陳伯輝는 〈粵方言音系的特點與考本字的聯繫〉에서 “有冇에서의 ‘冇’字는 [mou⁴]로 읽는데, 원래는 方言에서 나름대로 창조한 글자로 실제 글자는 ‘無’字이다. 《廣韻·虞韻》은 ‘武夫切’이며 [mou⁴]로 읽는다. 이 글자가 上聲으로 변한 이유는 아마도 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함인 듯 한데, 왜냐하면 ‘無’字는 원래 陽平調에 속하는 것으로 어조가 비교적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다 魚, 虞, 模 諸韻의 글자들이 비교적 약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有’字的 영향 때문일 것인데, ‘有’가 上聲이므로 ‘無’역시 ‘有’처럼 上聲으로 변했을 것이다”³⁾라고 하였다. 李如龍도 〈廣州話常用詞裡的幾種字音變讀〉에서 역시 “廣州語에서는 ‘沒有’를 ‘無’라고 하는데 이것은 古漢語와 南方의 여러 方言들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으로 讀音은 [mou⁴]로 읽어야 한다. 微母的 虞韻을 [mou]로 읽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聲調는 원래의 陽平이 아닌 陽上으로 변했는데 이는 분명히 ‘有’를 [jeu⁴]로 읽는 것에서 類推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聲調의 변함으로 인해 會意字인 ‘冇’를 따로 만들어 냈을 것이다”⁴⁾라고 말하였다. ‘冇’를 陽平調가 아닌 陽上調로 읽는 것은 變調現象이 아니라 ‘有’와 같은 聲調로 읽는 ‘同調’ 현상의 결과이다.⁵⁾

‘冇’는 표준 중국어의 ‘沒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사로 쓰여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는 ‘有’의 부정형으로 사용되거나 부사로 쓰여 과거의 경험, 행위, 사실 등을 부정한다. 표준 중국어의 경우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有’의 부정형은 否定副詞 ‘沒’가 ‘有’ 앞에 결합되어 ‘沒有’의 형태로 쓰이지만, 廣州語에서는 동사 ‘冇’가 단독으로 쓰여 ‘有’의 부정형을 대신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唔’은 비과거시제(현재나 미래)와 함께 쓰이지만, ‘冇’는 과거시제와 함께 쓰인다. 게다가 ‘唔’은 단독으로 대답할 수 없지만 ‘冇’는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다.

- 3) 陳伯輝 〈粵方言音系的特點與考本字的聯繫〉: ‘有冇之‘冇’字, 音[mou⁴], 原係方言自造字, 實乃‘無’字, 〈廣韻, 虞韻〉: ‘武夫切’[mou⁴]. 其所以變上, 可能是有加強的作用, 因‘無’字原屬陽平調, 調子較爲低沉, 而且魚虞模諸韻的字音亦較弱. 又可能是受‘有’字的影響, ‘有’爲上聲, 故‘無’亦隨而變上.’ (〈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廣東, 暨南大學出版社, 1997年7月, 57쪽)
- 4) 李如龍 〈廣州話常用詞裡的幾種字音變讀〉: ‘廣州話管‘沒有’說‘無’, 這是古漢語和南方諸方言的常見說法, 但讀音爲[mou⁴], 微母虞韻讀[mou]是常例, 聲調本應是陽平, 變讀爲陽上, 顯然是‘有’讀[jeu⁴]的類推, 大概因爲聲調變了, 因而另造會意字‘冇’.’ (〈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廣東, 暨南大學出版社, 1997年7月, 21쪽). 또는 (〈漢語方言的比較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01年6月, 296쪽). 두 권의 책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5) 拙稿 〈近百年 廣州語 正反疑問文的 變化樣相 - J. Dyer Ball의 教科書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제27집, 2003년12월, 361-362쪽 참조.

1) 「冇(동사)+賓語」

- (19) 佢係神父, 所以佢冇屋企人.
 (他是神父, 所以他沒有家人.)
 그 분은 신부님이라 가족이 없으셔.
- (20) 生意唔成功, 冇錢撈咯.
 (生意不成功, 沒有錢賺到.)
 장사가 잘 안 돼서 번 돈이 없어 (돈을 못 벌었어).
- (21) 樓下冇人咯.
 (樓下沒有人.)
 아래층에 아무도 없어.
- (22) 呢處冇乜嘢賣嘅.
 (這裏沒有什麼東西在賣.)
 여긴 아무 것도 안 팔아.

예문 (19)와 (20)은 ‘~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소유의否定을 나타내고, (21)과 (22)는 ‘~이 없다(~에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존재의否定을 나타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의 예문들에 사용된 「冇」는 동사로, 표준 중국어의 「沒(부사)+有(동사)」와는 달리 「冇」가 단독으로 쓰여 「有」의 부정형을 나타낸다.

2) 「冇(부사)+동사」

- (23) 我冇講大話.
 (我沒有說謊.)
 나 거짓말 안 했어.
- (24) 好耐冇見到你喇.
 (好久沒有看到你了.)
 오랜만이야.
- (25) 我冇讀過呢本書.
 (我沒有讀過這本書.)
 나 이 책 읽어본 적 없어.
- (26) 佢冇去過嗰處.

(他沒去過那裏.)
그 사람 거기 가본 적 없어.

예문 (23)과 (24)는 과거의 행위나 사실의 否定을 나타내고, 예문(25)와 (26)은 '有~過'의 형태로 쓰여 경험의 否定('~해 본적이 없다')을 나타낸다. 위 예문들의 「有」는 예문 (19)~(22)의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는 「有(동사)」와는 달리 부사로 쓰였다. 이는 표준 중국어의 否定副詞 「沒(有)」에 해당한다.

3. 「唔使」(不用, 不必) : 필요의 부정

「唔使」는 '~할 필요가 없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필요의 否定을 나타내는데, 이는 표준 중국어의 「不用」 혹은 「不必」에 해당한다.

- (27) 聽日唔使去上堂.
(明天不用去上課.)
내일 수업 안 가도 돼.
- (28) 你唔使噉講.
(你不用這麼講.)
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 (29) 我如果嚟, 你就唔使嚟.
(如果我來, 你就不用來.)
만약 내가 오게 되면 넌 안 와도 돼.
- (30) 你唔使驚.
(你不用怕.)
너 두려워 할 필요 없어.

「唔使」는 「有」처럼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1) A : 我使唔使打針啊?
(我要不要打針?)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B : 唔使.

(不用.)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27)~(31)의 예문들처럼 「唔使」는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의 否定副詞로 쓰이지만, 「使」는 이와는 다른 동사와 조동사로 쓰이는데, 그 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花(錢) : 돈을 쓰다 (동사)
 例) 你唔好使呢啲錢.
 (你不要花這些錢.)
 너 이 돈 쓰지 마!
2. 使用 : 사용하다 (동사)
 例) 借一支筆畀我使下.
 (借一支筆給我用一下.)
 쓰개 펜 하나 빌려줘.
3. 要 : ~해야 한다 (조동사)
 例) 使唔使等啊?
 (要不要等啊?)
 기다려야 하니?

4. 「(仲)未」(還沒) : 동작의 발생을 부정

「未」는 주로 「(仲)未」의 형태로 사용되어 ‘아직 ~하지 않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동작이나 상태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표준 중국어의 「還沒」에 해당한다.

- (32) 花仲未開啊.
 (花還沒開啊.)
 꽃이 아직 안 폈어.
- (33) 我仲未食飯.
 (我還沒吃飯.)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 (34) 我大佬仲未娶老婆.
 (我哥哥還沒娶老婆.)
 우리 오빠 아직 장가 안 갔어.

- (35) A : 你嚟韓國咁耐, 仲未去過明洞咩?
 (你來韓國那麼久, 還沒去過明洞嗎?)
 너 한국 온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명동에 안 가봤어?
 B : 仲未啊.
 (還沒.)
 응 (아직 안 가봤어).

표준 중국어에서는 과거의 행위, 사실, 경험 등을 부정(~하지 않았다)하는 경우나 동작의 발생(아직 ~하지 않다)을 부정하는 경우 모두 「沒(有)」를 사용하지만, 廣州語에서는 과거의 행위, 사실, 경험 등을 부정할 때에는 「冇」를 사용하고, 동작의 발생을 부정할 때에는 「未」를 사용한다.

예문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仲)未」는 「冇」나 「唔使」처럼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다. 예문 (32)~(34) 역시 「(仲)未」로만 대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32-1) A : 花開咗未啊?
(花開了沒有?)
꽃이 폈니? | B : 仲未啊.
(還沒.)
아니 아직. |
| (33-1) A : 你食咗飯未啊?
(你吃飯了沒有?)
너 밥 먹었니? | B : 仲未啊.
(還沒.)
아니 아직. |
| (34-1) A : 你大佬娶咗老婆未啊?
(你哥哥娶了老婆沒有?)
너희 오빠 장가 갔니? | B : 仲未啊.
(還沒.)
아니 아직. |

「未」를 제외한 나머지 否定詞, 즉 「唔」, 「冇」, 「唔使」, 「咪」, 「唔好」는 백 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否定詞를 사용하고 있지만, 「未」는 백 여 년 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唔曾」과 「未曾」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오십 년 전에 「未」로 바뀌어 지금은 「(仲)未」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⁶⁾ 예를 들면⁷⁾:

6) 拙著《廣州話百年來的詞彙變遷 - 以 J. Dyer Ball 的廣州話教科書爲線索 - 》, (臺灣,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2003年7月), 306-310, 315쪽 참조.
 7) 아래의 예문들에서 첫 번째 항목은 100년 전 (예문 33과 33-1) 혹은 오십 년 전 (예문 33-2) 廣州語이고, 두 번째는 현대 廣州語, 세 번째는 현대 표준중국어, 네 번째는 한

- (36) 考過兩三句, 未會入, 我大佬已經中舉咯. (Ball1888)
 (考過兩三句, (仲)未入, 我大佬已經中舉咯.)
 考過兩三次, 還沒考上, 但是我大哥已經考上了.
 시험을 서너 번 봤는데 아직 합격 못했어. 그런데 우리형은 이미 합격했어.
- (36-1) 有啲啲上上嚟, 有啲啲會搬過嚟. (Ball1912)
 (有啲啲拾上上嚟, 有啲啲(仲)未搬過嚟.)
 有些拿上來, 有些還沒搬過來.
 어떤 건 가지고 올라왔고, 어떤 건 아직 안 옮겨왔어.
- (36-2) 我未講完, 你唔好講. (Chan1947)
 (我(仲)未講完, 你唔好講.)
 我還沒(有)講完, 你不要講.
 내 얘기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너 말하지마.

위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백 여 년 전에는 「未會」(예문 36)이나 「唔會」(예문 36-1)의 형태로 쓰이다가 오십 년 전에는 「未」(예문 36-2)로 바뀌고, 현대에는 「(仲)未」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즉 :

백 여 년 전	오십 년 전	현대
唔會~ →	未~ →	(仲)未~
未會~ ↗		

李新魁는 「未」를 古代漢語의 흔적이라고 보고있으나⁸⁾ 만약 그의 말대로라면 「未」는 「唔會」과 「未會」으로 변한 뒤 또 다시 「未」로 변한 결과가 되어 비가역적인 언어 발전 규칙에 위배되게된다.

5. 「咪」, 「唔好」(別, 不要) : 行爲의 禁止

「咪」, 「唔好」는 모두 「~하지 마라」라는 禁止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唔好」의 경우 「今日天氣唔好(今天天氣不好)」와 같이 술어로 쓰이면 「 좋지 않다(不好)」라는 뜻이 되고, 동사 앞에 놓이면 「~하지 마라」라는 금지의 뜻이 된

글 번역이다.

8) 李新魁 《廣東的方言》: 「這個「未」也是古代漢語的遺留。」(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4년10월), 262쪽.

다.

금지를 나타내는 「唔好」〔 $m^{21}hou^{35}$ 〕의 경우, 빨리 발음하게 되면 습음 현상이 일어나 〔 mou^{35} 〕로 발음된다.

「咪」와 「唔好」는 표준 중국어의 「別」 또는 「不要」에 해당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 (37) 咪飲咁多水啊。
(不要喝那麼多水.)
그렇게 물 너무 많이 마시지 마.
- (38) 你要小心啲, 咪再整爛囉。
(你要小心, 不要再弄壞.)
조심해, 다시는 망가뜨리지 마.
- (39) 唔好咁孤寒啦!
(不要那麼吝嗇!)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마!
- (40) 你唔好去嗰處。
(你不要去哪裏.)
너 거기 가지 마.

예문 (39)에서의 어기조사 「啦」는 청유형 뿐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의 명령형의 어기도 지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咪」와 「唔好」 뒤에 「啦」가 놓이게 되면 「~하지 마」라는 딱딱한 느낌의 강한 명령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어때?」 혹은 「~하지 않는 것이 나올 거야」라는 다소 부드러운 느낌의 명령을 나타내게 된다.

위의 예문 (37)과 (38)은 「唔好飲咁多水啊」와 「你要小心啲, 唔好再整爛囉」로 바뀌 쓸 수 있고, 예문 (39)와 (40)은 「咪咁孤寒啦!」와 「你咪去嗰處」로 바뀌 쓸 수 있다.

Ⅲ. 結論

廣州語의 否定詞에는 동작이나 판단, 존재, 습관적인 행위, 상태 등을 부정하는 「唔」과 존재나 소유, 과거의 행위 등을 부정하는 「冇」, 필요의 부정을 나

타내는 「唔使」, 동작의 발생을 부정하는 「(仲)未」, 그리고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咪」와 「唔好」가 있다.

廣州語 否定文의 문형은 일반적으로 표준 중국어와 일치하지만, 일부는 표준 중국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一, 표준 중국어의 「不」는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廣州語의 「唔」은 단독으로 대답할 수 없다. 그렇지만 「冇」, 「唔使」, 「(仲)未」는 표준 중국어처럼 단독으로 대답이 가능하다.

二, 「동사+得」의 부정형이 표준 중국어에서는 「동사+不+得」인 반면 廣州語에서는 이와 반대인 「唔+동사+得」으로 이루어져 있다.

三, 또한 「동사+得+補語」의 부정형은 표준 중국어가 「동사+不+補語」인 반면 廣州語는 주관적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의 「동사+唔+補語」와 객관적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의 「唔+동사+得+補語」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四, 「冇」는 소유나 존재, 과거의 행위 등을 부정하는데, 소유나 존재를 부정할 때에는 표준 중국어와는 달리 「冇」 단독으로만 사용된다. 즉 표준 중국어의 경우는 동사 「有」 앞에 否定副詞 「沒」가 결합된 「沒有」의 형태로 소유나 존재를 부정하지만, 廣州語에서는 동사 「冇」가 단독으로 쓰여 「有」의 부정형을 대신한다. 하지만 과거의 행위, 사실, 경험 등을 부정할 때에는 표준 중국어처럼 「冇」가 부사로 쓰여 동사 앞에 놓이게 된다.

五, 「未」는 지난 백 여 년 동안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백 여 년 전에는 「唔會」와 「未會」의 형태로 쓰이다가 오십 년 전에는 「未」로 바뀌었고 지금은 「(仲)未」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未」를 제외한 나머지 否定詞 「唔」, 「冇」, 「唔使」, 「咪」, 「唔好」는 지금도 백 여 년 전과 똑같은 否定詞를 사용하고 있다.

六, 금지를 나타내는 「咪」와 「唔好」에 어기조사 「啦」가 첨가되면 부드러운 느낌의 명령형의 어기를 지니게 되어 「~ 하지 마」라는 딱딱한 느낌보다는 「~

하지 않는 것이 어때?’ 혹은 ‘~ 하지 않는 것이 나올 거야’ 라는 부드러운 어기를 나타내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否定詞들은 모두 표준 중국어와는 서로 다른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南方方言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漢語 七大方言 중에서 南方方言에 속하는 粵方言, 閩方言, 客家方言은 서로 유사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위에서 살펴본 否定詞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詹伯慧는 《漢語方言及方言調查》에서 “閩方言에도 (廣州話처럼) 비교적 특수한 부사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否定副詞의 경우 廈門語의 ‘唔’은 普通話의 ‘不’에 해당하고 ‘無’는 普通話의 ‘沒有’에, ‘未’는 普通話의 ‘還沒有’에 해당한다.……. 이러한 否定詞의 용법은 潮州와 浙南등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했다.⁹⁾ 또한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에서 편찬한 《漢語方言詞彙(第二版)》에서는 몇 가지 否定詞에 대한 각 방언의 용법을 열거하고 있는데, 南方方言에 해당하는 否定詞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不	唔 (梅縣, 潮州) 伓 (廈門) ¹¹⁾
沒(有)	未 (廈門, 潮州, 福州)
別	唔好 (梅縣)
不用	唔使 (梅縣)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南方方言의 否定詞는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廣州語에 나타나는 否定詞는 표준 중국어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北方과 멀리 떨어져 있는 南方方言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南方方言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9) 詹伯慧《漢語方言及方言調查》: 「閩方言裏也有不少比較特殊的副詞, 如表示否定的副詞, 廈門話裏的『唔』相當於普通話的『不』, 『無』相當於普通話的『沒有』, 『未』相當於普通話的『還沒有』, …… 這幾個否定副詞的用法, 也見於潮州和浙南等地。」(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1년1월), 269쪽.

10)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漢語方言詞彙(第二版)》(北京, 語文出版社, 1995年 6월), 607-608쪽 참조. 예문 중에서 梅縣은 客家方言에, 廈門, 潮州, 福州은 閩方言에 속한다.

11) 廈門방언에서는 비록 ‘唔’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발음은 ‘唔’과 같은 [m]이다.

주고받기 용이했을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否定詞 역시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뿐 아니라 廣東省 내에는 粵方言을 비롯해 閩方言과 客家方言까지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방언들간에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書目】

- 千島英一 〈廣州方言形成的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83.4
-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編 《漢語方言詞彙(第二版)》 北京, 語文出版社, 1995.6
- 李新魁 《廣東的方言》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4.10
- 李新魁、黃家教、施其生、麥耘、陳定方 《廣州方言研究》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5.6
- 李如龍 〈廣州話常用詞裡的幾種字音變讀〉: 《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19-22, 1997.7
- 李如龍 《漢語方言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1.4
- 李如龍 《漢語方言的比較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1.6
- 袁家驊 等著 《漢語方言概要》(第二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89.6
- 高華年 《廣州方言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4.1
- 麥耘、譚步云 編 《實用廣州話分類詞典》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7.8
- 曾子凡 《廣州話·普通話語詞對比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4.1
- 袁家驊 等著 《漢語方言概要》(第二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89.6
- 張洪年 《香港粵語語法的研究》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72.10
- 陳伯輝 〈粵方言音系的特點與考本字的聯繫〉: 《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57-64, 1997.7
- 黃景湖 《漢語方言學》 福建, 廈門大學出版社, 1987.6
- 鄭定歐 等 《今日粵語》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1993.9
- 詹伯慧 主編 《漢語方言及方言調查》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1.1
- 詹伯慧 主編 《廣東粵方言概要》 廣東, 暨南大學出版社, 2002.7
- 趙恩挺 〈-廣州話百年來的詞彙變遷 - 以 J. Dyer Ball的廣州話教科書為線索-〉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 博士論文, 2003.7

- 趙恩挺 〈近百年 廣州語 正反疑問文的 變化樣相 - J. Dyer Ball의 教科書를 중심으로〉:《中國文學研究》第27輯, 2003.12
- 劉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北京, 商務印書館, 2003.5
- 饒秉才、歐陽覺亞、周無忌 編著 《廣州話詞典》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7.10
- J. Dyer. Ball Cantonese Made Easy, Second edition. Hongkong: 'China mail' office (臺北成文出版社 1971年影印本).1888
- J. Dyer. Ball How to Speak Cantonese, Fourth edition. Hongkong: Kelly & Walsh, Ltd. 1912
- Chan Yeung Kwong Everybody's Cantonese. Hongkong: The Man Sang Printers. (日本不二出版(株)1988年4月影印本, 波多野太郎編輯, 收錄於《中國文學語學資料集成第一篇(全四卷)》)1947

【中文提要】

現代廣州話的否定句, 一般是用「唔」來表示對動作或狀態等的否定; 用「冇」來表示對領有或事物存在的否定。「唔」相當於國語的「不」;「冇」相當於國語的「沒有」。廣州話的「唔使」表示對「需要」的否定, 相當於國語的「不用, 不必」;「(仲)未」表示動作或事情還沒實現, 相當於國語的「(還)沒, (還)沒有」。此外, 用「咪」與「唔好」表示對行為的勸阻或禁止, 相當於國語的「不要, 別」。

國語的否定詞「不」[pu⁵¹], 「別」[pie³⁵] 與「沒(有)」[mei³⁵] 爲[p-]或[m-]聲母, 但廣州話的否定詞「唔」[m²¹], 「冇」[mou¹³], 「未」[mei²²], 「咪」[mei¹³] 都爲 [m-]聲母。國語的否定詞與廣州話的否定詞都屬於雙唇音, 但是國語的否定詞屬於中古的幫母與明母; 廣州話的否定詞只屬於中古的明母。

廣州話的否定詞與其他南方方言(閩方言, 客家方言)的否定詞, 其詞彙與用法相類似。因此可知廣州話的否定詞受南方方言的影響, 但這並不是代表只有廣州話受其他方言的影響, 而是南方方言互相受影響或影響到鄰近的方言。

【主題語】

廣州語, 否定文, 語法, 粵方言, 漢語方言, 南方方言